



미디어 콘텐츠로 현현되는 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 연구

삼국유사 담론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represented in Media Contents -Focusing on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Strange Stories -

저자 (Authors)	표정옥 Pyo Jung Ok
출처 (Source)	서강인문논총 30 , 2011.04, 371-399(29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35373
APA Style	표정옥 (2011). 미디어 콘텐츠로 현현되는 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 연구. 서강인문논총, 30, 371-3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4 10: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미디어 콘텐츠로 현현되는 『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 연구

- 『삼국유사』 담론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

표 정 옥*

1. 들어가며
2. 드라마 <해신>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타자성
3. 드라마 <선덕여왕>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다성성
4. 드라마 <김수로>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상호소통성
5. 나오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로 현현되는 『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을 통한 일연의 세계관과 문화관 연구를 위해 『삼국유사』의 <기이편> 이야기를 대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일연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삼국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유사』가 현대 문화에 대화를 걸어오는 타자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삼국유사』만큼 미디어의 중요 원천 텍스트가 되는 예는 없는 듯하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시물라시옹의 시대가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이한 이야기 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찾고자 한 것은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집중되어 있다. <기이편>을 통해 우리는 현대 문화가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에서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로 재탄생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 속에서 일연이 서술하고자 했던 서술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 중 다성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연의 『삼국유사』를 가지고 놓고 있는 현대 미디어를 열거하자면 그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 드라마 <선덕여왕>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다성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과 <도화녀와 비형랑>이 반영된 드라마의 상상력을 다성성이라는 측면에서 읽어보고자 한다.

셋째,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를 미디어로 재탄생시킨 드라마<김수로>의 상호소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연은 유교적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를 앞세운 『삼국사기』에 반해서 불교적 초월주의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과 신성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왕들의 신이한 탄생을 환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신이한 이야기를 통해 일연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각인이었다. 특히 신이한 이야기 중 <가락국기>의 김수로는 민중과 소통하는 의미의 새로운 인물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의는 일연의 『삼국유사』가 미디어 콘텐츠에서 활용되는 대화적 상상력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통해 일연의 세계관과 문화관을 그의 이야기 서술 속에서 새롭게 읽어가고자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이야기 담론 체계에 들어난 내적 의미를 독해해 냄으로써 삼국유사의 문화 생산 동력을 보다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현재와 과거의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가지는 힘을 찾아 보는 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미디어 콘텐츠, 삼국유사, 대화적 상상력, 세계관, 문화관, 열린 상상력, 여성성, 양성성, 문화의 역동성, 호모 페스티부스, 호모 히스토리쿠스.

1. 들어가며

역사란 이야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인가. 이러한 사유는 일연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다. 만약 이야기가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초현실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일연이 기술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읽어야 하는가. 일연의 이야기를 읽는 현대 독자들이 가지는 두 번째 질문이다. 그렇다면 황당하기까지 한 그 신이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어떤 내재적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이다. 『삼국유사』의 담론을 거론할 때 『삼국사기』의 담론과 비교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야기 즉 서술 방식이다. 『삼국사기』가 중국의 역사서에 기초해서 정사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삼국유사』는 우리 민간 사이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집결체이다. E.H. 카이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실재성’에 바탕을 둔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이란 역사가의 해석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사실을 대하는 역사가의 해석의 객관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한다. 카이는 이런 점을 의식하여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역사가의 방향 감각’이라고 말한다.¹⁾ 미래에 대한 역사가의 방향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일연은 어떤 문화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집대성한 『삼국유사』의 담론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H. 카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0.

최근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연의 사상을 텍스트 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고 텍스트 내적인 글쓰기 방식에 의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찬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²⁾ 둘째, 문화콘텐츠와 문학치료 등 현대적 감각으로 일연의 상상력을 읽으려는 움직임이 들 수 있다. 이는 이야기가 새로운 치료역할을 한다는 효용론에 입각한 것과 문화의 생산 동력이 되는 활용성과 역동성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³⁾ 셋째,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던 여성성의 담론으로 『삼국유사』를 재조명하는 관점의 논의들을 한 갈래로 들 수 있다. 여성 인물의 형상화와 불교와 모성성의 관계 및 모성 형상화와 여성의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⁴⁾ 변화하는 시대 담론을 통해 텍스트를 새롭게 읽는 고무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
- 2) 이강욱,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 연구』 Vol. 5, 국문학회, 2001.
정천구, 「삼국유사 글쓰기 방식의 특성 연구 - 수이전, 삼국사기, 해동고승전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학교학원, 1996.
박상영, 「『삼국유사』 소개 찬사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 『고전문학연구』 Vol.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2」, 『한국언어문화』 Vol.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3)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료의 문화 콘텐츠와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Vol.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장만식, 「『삼국유사』 권2 <무왕조>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 연구』 Vol.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하은하, 「『삼국유사』 소재설화를 이용한 문학 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Vol. 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 4) 이대형, 「모성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 고대에서 근대전환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최선경, 「『삼국유사』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형상과 기능에 관하여」, 『인간연구』 Vol. 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05.

우리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쓰게 된 표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쓰게 된 소회를 밝힌 서문의 이야기에 잠깐 경청해보면 그의 이야기 쓰기의 동기를 느낄 수 있다. 일연은 옛날 성인들이 문화와 도덕을 베풀기 위해 괴변이나 폭력이나 도깨비는 말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그런데, 왕이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을 받거나 상서로운 징후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 신기한 사건들은 권력을 잡고 큰일을 이루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황하(黃河)에서 그림[河圖]이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글[洛書]이 나오면서 성인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무지개가 신모(神母)를 둘러싸서 희(羲)를 낳고, 용이 여등(女登)과 관계하여 염(炎)을 낳고, <중략> 요(堯)의 어머니는 잉태한 지 열 년 달 만에 요를 낳았고, 패공(沛公)의 어머니는 용과 큰 못에서 교접하여 패공을 낳기에 이르렀다. 그 뒤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을 어찌 이루 다 기록하라! 이렇게 본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기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도 무엇이 그리 괴이하다고 하라! 이것이 신비로운 기적 이야기를 이 책의 첫머리에 신게 된 까닭이며 그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⁵⁾”고 기술한다. 즉 중국 왕들의 신기한 예를 들어 한참동안 설명한 후에 우리의 삼국 시조들의 탄생이 모두 신기한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그가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 꺼내온 이야기는 속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무지개에서 사람이 나오고, 용이 인간을 낳게 하고, 알에서 인간이 탄생하고, 발자국을 밟고 인간이 탄생했다는 중국의 해괴한 이야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삼국 시조의 신이한 힘을 말하기 위해 그는 <기이편> 첫머리를 중국의 이상한 이야기들로 시작하고 있다.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기적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논리

5) 리상호, 『삼국유사』, 까치, 2000, 50쪽.

를 얻는 셈이다. 신이한 이야기 속에서 민족의 정기를 찾고자 한 것은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집중되어 있다. <기이편>1, 2를 통해 우리는 현대 문화가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미디어 콘텐츠에서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 문화만큼 일연의 『삼국유사』가 활발하게 담론화 되었다. 드라마 <주몽>, <태왕사신기>, <해신>, <서동요>, <선덕여왕>, <김수로> 등과 영화<황산벌>과 영화<전우치>에 이르기까지 『삼국유사』의 활용성은 실로 크다고 하겠다. 미디어 콘텐츠로 재탄생되는 『삼국유사』의 이야기 속에서 일연이 서술하고자했던 서술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드라마 <해신>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타자성

일연에 의해 역사는 선별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왕의 업적 위주의 진술이 아니라 각 왕의 시대와 연관된 특이한 이야기가 진술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특히 일연이 서술한 몇몇 이야기는 미디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숨겨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상징적인 이야기를 썼을 가능성도 있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주관이 배제된 채 인물들의 대화만을 담담하게 그리는 장들도 있다. 일연 스스로 평가를 내린 장들보다 이렇게 상징과 대화만을 보여주는 장은 타자성에 대한 대화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에서 부터 이런 사건의 전말은 어떤 것이었을까, 주체는 누구이며 대상은 누구인가 등 수많은 상상력을 불러오는 이야기들을 선보이고 있다. 일연의 시비를 보면 우리는 『삼국유사』가 현대 문화에서 활용되는 대화적 상상력에 대한 단서를 읽을 수 있게 된다.

문답이 끝난 다음 일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다.

“여러 선택은 날마다 이것에 답하시오. 심하게 아프고 가려운 것과,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것이 모호하여 가릴 수 없으리라.”

이에 지팡이를 다시 한 번 내리치고, “이것은 심하지 않은 것이요.” 하고, 또다시 한 번 지팡이를 내리친다. “이것은 바로 심한 것이며” 또다시 한번 법상을 내리치고, “이것은 심하지 않은 것이요”하고, 또다시 한 번 법상을 내리치고는 말하였다. “이것은 심한 것이면서 심하지 않은 것이니 가려보아야 할 것이요.”⁶⁾

위의 인용문은 일연의 시비에 기록된 선문답의 일종이다. 『장자』의 <재물론>에 등장하는 이것과 저것이 모두 하나로 통하는 이치를 느끼게 한다. 즉 심한 것과 심하지 않는 것을 가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는 것은 결국엔 『삼국유사』의 이야기 기록의 대화적 상상력일 것이다. <궁파 장보고>에 대한 동일한 사건을 기술한 『삼국사기』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매우 다르게 기술된다. 장보고의 경우 역적이라고 기술한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재구성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상상력을 열어 놓았다는 점을 주시해 볼 수 있다. 『삼국유사』의 이야기 상상력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들의 공통된 상상력은 위와 같은 이야기의 대화적 상상력에 기초한다. 심하게 아프고 가려운 것과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것이 모호하여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화의 의도하는 바가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무대왕, 염장, 궁파>의 서술에 나타난 표층적 대화구조를 통한 타자성의 대화적 상상력을 살펴볼 것이다.

드라마<해신>을 가능하게 했던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

6) 보각국사 일연의 시비에 적힌 글을 시인 고운기가 해석한 것을 인용하였다.

졌다.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의 한 장 분량과 『삼국사기』의 몇 줄, 『동사강목』의 몇 줄 등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일본의 자료인 『입당구법순례행기⁷⁾』와 중국의 『신당서』와 『번천문집』 등으로 자료를 확대 가면서 대화적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주일대사였던 하버드의 라이샤워 교수⁸⁾의 장보고 연구는 무척 요긴한 정보를 준다. 이 자료들 중에서도 『삼국유사』가 던져주는 장보고에 대한 정보는 그 어떤 것들보다 유용하다. 『삼국유사』의 <기이편>에는 주로 신이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런데 <신무대왕, 염장, 궁파>편에서는 왕과 함께 신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신무대왕과 염장과 궁파를 이야기한 장에서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의문이 든다.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자.

제45대 신무대왕(神武大王)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협사(俠士) 궁파(弓巴)에게 말하였다.

“나에게는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그를 제거해 주면, 왕위를 차지한 후 그대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겠소.”

궁파는 응낙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군사를 일으켜 수도를 침범해 그 일을 이루었다.

왕위를 찬탈하고 궁파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자, 신하들이 옆에서 힘껏 간하였다.

“궁파는 비천하니, 왕께서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왕은 신하들의 말에 따랐다. 이때 궁파는 청해진(淸海鎭)에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군 염장(閻長)이 그 말을 듣고는 아뢰었다.

“궁파가 장차 불충을 저지르려 하니 소신이 제거하겠습니다.”

7) 엔닌, 김문경 옮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8) Edwin O. Reischauer, *Ennen's Travels in Tang China*, The Ronald Press Company, 1955.

그러자 왕이 기꺼이 허락하였다.

염장은 왕명을 받고 청해진으로 가서 연락하는 사람을 통해 말하였다.

“왕에게 작은 원망이 있어 현명한 공께 몸을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공파는 그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 무리가 왕에게 간하여 내 딸을 왕비로 삼지 못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만나려 하는가?”

염장이 다시 사람을 통해 전하였다.

“이는 백관들이 간언한 것이지, 저는 그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현명한 공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공파는 그 말을 듣고 청사(廳事)로 불러들여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이곳에 왔소?”

염장이 말하였다.

“왕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어 막하(幕下)에 기대어 해를 모면하고자 합니다.”

공파가 말하였다.

“다행한 일이오.”

그들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 사이 갑자기 염장은 공파의 장검을 가져다 그를 죽였다. 그러자 휘하의 군사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모두 땅에 엎드렸다. 염장은 그들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공파를 죽였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염장에게 상을 주고 아간(阿干)의 벼슬을 내렸다.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신무대왕·염장·공파)

여기서 바로 공파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파가 바로 장보고이기 때문이다. 당시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장보고는 역적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글의 일부분으로

쓰고자 했던 일연의 의중은 서사 놀이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왜 일연은 이 이야기를 신고자 한 것일까. 일연은 정사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서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환상적으로 때로는 아주 모호하게 글을 전개한다. 일연이 장보고를 주목한 <신무대왕, 염장, 궁파>라는 장은 설명하기와 해석하기가 절제된 채 마치 드라마처럼 최대한 보여주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찬과 같은 기법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인물들의 대사를 객관적으로 적고자 하였다. 이러한 진술 의도는 표면적으로 의도가 드러난 장보다 더 효과적인 읽기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적 상상력의 일환이다.

신무대왕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 궁파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진술은 시작된다. 신무대왕이 김우징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은 문성왕이다. 그는 왕위 쟁탈 싸움에서 밀려 청해진에 얼마간 머무르면서 장보고와 친분을 쌓았다. 그는 왕위를 다시 찾기 위해 장보고와 거래를 한다. 그 거래는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장보고는 군사를 일으켜 수도를 침범해 거사를 성공시킨다. 왕위를 찬탈한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하자 신하들은 “**궁파는 비천하니, 왕께서 그의 딸을 왕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결사반대하였다. 당시 신라 말은 왕의 세력이 매우 작아졌던 귀족 사회였다. 왕은 신하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청해진을 지키던 궁파가 왕이 약속을 어긴 것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꾀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장보고를 처치하겠다고 자청한다.

왕은 염장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를 청해진으로 보낸다. 청해진에 도착한 염장은 궁파에게 자신도 왕에게 원망이 있다고 속이고 동변상련을 느끼게 해서 장보고 진영에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그와 가까이한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을 때 일연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객관화된 보여주기 방식의 글에서는

왕과 염장과 귀족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진다. 장보고가 살았던 흥덕왕 때 나라의 힘은 상당히 쇠약해 있었고 해안가의 백성들은 왜구의 노략질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고 당시 기록은 전한다. 그때 중국 당나라에서 성공한 장보고 즉 궁파는 신라에 돌아와 청해진을 건설하겠다고 왕에게 청한다. 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장보고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이라는 국제항을 건설하기에 이른다.

대화에서 느껴지는 대화적 상상력의 일환으로 <신무대왕, 염장, 궁파>편에서 궁파를 타자화 하는 네 부분을 읽을 수 있다. 일연이 기술하는 방식 속에 그가 의도한 의미는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단서를 읽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자. 첫째, 신무대왕의 말이다. “나에게는 같은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그를 제거해 주면, 왕위를 차지한 후 그대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겠소.”라고 말한다. 일연이 왕의 요청을 먼저 쓴 것은 왕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기술로 볼 때 왕에 의해 장보고는 타자화 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장의 거짓 발언으로 장보고를 속이는 지점이다. 염장은 “이는 백관들이 간언한 것이지, 저는 그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현명한 공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염장과 궁파의 술자리를 설명한 부분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완전 무장해제한 궁파는 염장과 함께 술자리를 즐겁게 한다는 이야기로 “그들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 사이 갑자기 염장은 궁파의 장검을 가져다 그를 죽였다.”라고 일연은 담담히 기술하고 있다. 아무런 적의가 없이 받아들인 장보고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의도가 타자를 위한 기술처럼 보이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즉 타자성에 대한 대화적 상상력이다. 주체와 타자를 중심으로 서술을 볼 때 네 번째 타자성에 대한 진술은 왕이 장보고가 제거되자 기뻐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왕은 기뻐하며 염장에게 상을

주고 아간(阿干)의 벼슬을 내렸다.”라고 일연은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는 몽고의 침입으로 도탄에 빠져 나라의 근본도 모르고 나라의 자긍심도 느끼지 못하는 민중에게 이야기로써 민족애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에서는 왕국과 왕들의 신이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유독 이 장면에서 약속을 저버린 왕의 표리부동함을 거침없이 보여준다는 것은 “심한 것인지 심하지 않은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는 후세인의 임무에 해당하는 글 읽기를 요구하는 대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이야기하고자 함은 다른 장들처럼 왕의 업적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일까. 업적이라고 하기엔 신무대왕의 행적과 신하들의 행적이 지나치게 비열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 타자성에 대한 일연의 사유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연이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글을 통해서만 볼 때 신무대왕은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장보고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자신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 신하들의 반대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신무대왕은 장차 불충을 저지르려 한다는 염장의 말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염장은 자신의 의도를 속이고 장보고의 경계하는 마음을 무장해제하기에 이른다. 염장은 유쾌한 술자리를 하고 나서 장보고의 목을 쳐서 죽인다. 그리고 염장은 아간이라는 큰 벼슬을 얻는다. 일연은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누군가의 말을 빌려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속임수와 의도를 그대로 대화로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각 글에 평을 했던 다른 장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분명 다른 의도가 읽혀진다. 역사의 영웅이 살다간 억울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후세들에게 장보고를 타자성으로 다시 읽게 하는 대화적 상상력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드라마 <선덕여왕>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다성성

드라마<선덕여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과 <도화녀와 비형량>부분의 다성성을 살펴보는 대화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선덕여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예지력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세 번째이다. 사실,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죽는 날을 예언한다는 것은 다성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왕은 아무 병도 없는데 자신의 죽는 날을 다음과 같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후대 문무왕의 원망과 백성들의 소망과 일연의 의도가 중첩적으로 보인다. 세 번째 예언을 들어보자.

“내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初利天) 가운데 장사지내라.”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물었다.

“어디입니까?”

왕이 말하였다.

“낭산(狼山)의 남쪽이다.”

그 달 그 날에 이르러 과연 왕이 죽었다. 신하들은 왕을 낭산 남쪽에다 장사지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었다. 불경에 말하였다.

“사천왕천(四天王天) 위에 도리천이 있다.”

이에 대왕이 신령스럽고 성스러웠음을 알게 되었다.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선덕여왕을 늙은 할미와 암탉과 암돼지에 비

유하고 있는 반면, 일연은 지혜와 선견지명을 가진 왕으로 평하고 있다. 또한 김부식은 선덕여왕을 폄하하기 위해 중국의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나 척천황후(則天皇后) 무씨(武氏)를 왕이라 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말한다. 일연이 제시한 세 가지 지혜 중 모란꽃과 옥문지는 과학적 사고와 시적 직관력이 수반된 발언임으로 지혜를 느낄 수 있으나 세 번째 지혜는 다소 과학적이지 못하고 작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언은 여왕이 죽고 난 후 한참 후인 문무왕 때 실현이 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야기의 다성성을 느끼게 된다.

여왕은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장사지내라고 지시했다. 아무도 그곳을 모르기에 여왕은 그곳이 낭산 남쪽이라고 말한다. 그 후 진덕여왕과 무열왕대를 지나서 비로소 문무대왕이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었는데, 불교에서 도리천은 바로 사천왕사 위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하고 자신이 묻힐 곳까지 정해주고 갔으니, 여왕은 신령스럽고 성스럽기까지 했다고 일연은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를 무심히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뒤 문무대왕(文武大王)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었다”는 대목이다. 선덕여왕은 647년에 죽었고, 그 후 진덕여왕과 무열왕을 거쳐 비로소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다. 문무왕은 626년 생이고 그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661년의 일이다. 진덕여왕이 7여년을 왕위에 있고, 무열왕이 7여년을 왕위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일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덕여왕이 죽고 난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묘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언한 셈이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신통함의 후광은 선덕여왕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문무왕은 사천왕사를 무덤 아래에 지음으로써 선덕여왕의 신통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당나라의 힘을 빌려왔지만 당나라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왕의 깊은 고뇌의 결과가 아닐까 한

다. 또한 흠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강력한 왕권과 신성한 힘은 반드시 필요조건이었을 것이다. 일연은 이 글의 마지막에 신라의 세 여왕이 탄생한 것을 당나라의 모란꽃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일연 역시 본인이 『삼국유사』 서문에 밝힌 편찬의도에 걸맞게 자신의 욕망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이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덕여왕이 신라의 대표적인 문화인 첨성대를 쌓았다는 이야기도 마지막 부분에 첨가하고 있다.

우리가 드라마<선덕여왕>을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보았던 것 중 하나가 우주의 자연 원리인 책력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미실과 덕만의 대결이었다. 월천대사라는 인물이 계산한 월식은 때로는 미실에게 권력을 안겨다주었고 그가 계산한 일식은 덕만을 여왕으로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대의 이집트의 여사제들은 예외 없이 이 책력을 사용해서 하늘과 인간 사이에서 막대한 권력을 누렸었다. 미실도 마찬가지다. 미실이 제를 지내면 마른하늘에서 비가 오고 해가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달이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움직임을 인간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경외감과 공포심을 주었을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미실의 자식은 『삼국유사』의 비형량이라는 인물과 겹친다. 진흥왕의 둘째 아들 진지왕 금륜은 미실을 왕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폐위되었지만 표면적인 폐위의 명목은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음란”하기 때문이었다. <화랑세기>에서 진지왕은 3년 동안 유궁에 갇혀 있다가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몰래 세상에 나가 귀신행색을 하였다. 도화녀라는 여자를 만나 정을 나누었는데 그때 태어나게 된 아들이 비형량이다. 비형량은 자기 신분의 정체성과 뿌리를 밝힐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평생 동안 괴로워했던 것 같다. 그는 귀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서글펐을 것이다. 드라마

는 이 인물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비형랑과 같이 불행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이로 비담이라는 인물을 창조해 낸 것 같다. 역사의 비형랑이나 드라마의 비담이나 모두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폐위된 진지왕에게는 용수와 용춘이 있었고 죽은 후에 얻은 비형랑이 더해진다. 그는 진평왕에 의해 함께 궁에서 자라게 된다고 한다. 후에 용수는 천명공주의 남편이고 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이다.

<도화녀와 비형랑>에 나오는 귀신의 아들이 된 비형랑은 드라마<선덕여왕>으로 오면 비담과 비슷하게 그려진다. 그렇다면 비형랑이 비담인가. 그럴 가능성은 시기적으로 보아 희박하다. 비담은 선덕여왕이 죽은 647년에 왕의 폐위를 주도했던 상대등이라고 한다. 645년에 상대등에 올랐다는 내용 이외에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아무리 유추해보아도 비형랑이 비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사의 비형랑과 드라마의 비담은 진지왕이라는 비운의 왕의 한 많은 자식들이라는 점으로 다성성의 대화적 상상력으로 읽혀진다. 비담은 선덕여왕 때 난을 일으켜 9족이 멸한 인물로 알려지는 바가 거의 없지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진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등을 지낸 비담이 염종과 난을 일으킨 데에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려던 왕권과 귀족 사이의 갈등의 표출이라고 보는 것이 우세하다. <삼국유사>와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어머니가 도화녀가 아니라 미실이라는 데 변별력이 있다. 비형랑과 비담은 귀신의 자식이라는 같은 운명을 가진 설화와 드라마 속의 인물이다. 사실 드라마의 비담은 진지왕의 아들이니 천명공주의 남편인 용수공과 동생 용춘공과는 이복형제인 셈이다. 그 점은 비형랑과 비담이 가지는 공통점이다. 그들은 폐위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해 괴로워하는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비형랑이 귀신과 어울려 노는 것처럼 드라마 속의 비담 역시 신출귀몰한 무예로 마치 풍운아처럼 떠도는 것이다.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고, 그 후 2년 만에 도화녀의 남편 역시 죽었다. 열흘 남짓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화녀의 방에 와서 말하였다.

“네가 지난 번 약속한 바와 같이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 되겠는가?”

도화녀가 좀처럼 승낙하지 않고 부모에게 여쭙자 부모가 말하였다.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그리고 그 딸을 방으로 들여보냈다.

임금은 이레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항상 오색구름이 지붕을 감싸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이레 후 왕은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 도화녀가 이로 인해 임신하여 달이 차 곧 해산하려고 하자 천지가 진동하였다. 한 사내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도화녀와 비형랑>

<도화녀와 비형랑>이라고 하는 장의 이야기는 비형랑과 같은 서자들의 목소리와 일연의 신이성에 대한 논의가 겹쳐있으며 진지왕과 진평왕의 이야기가 읽히지며 더 나아가 『화랑세기』의 미실의 욕망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다성성의 대화적 상상력이다. 소설 <미실⁹⁾>과 김대문이 썼다고 하는 『화랑세기』¹⁰⁾는 그러한 궁금증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화적 상상력으로 이어진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진흥왕이 죽자 둘째 아들 금륜태자가 진지왕이 된다. 진흥왕이 죽었을 때, 사도황후와 미실과 미실의 동생 미생과 미실의 남편 세종은 왕의 죽음을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둘째 아들 금륜태자를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 미실과 먼저 정을 통하게 했으며 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면 미실을 왕후로 봉하기로

9) 김별아, 『미실』, 문이당, 2005.

10) 김대문, 이종욱 옮김, 『화랑세기』, 소나무, 1999.

밀실계약을 해 놓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왕을 모신 미실이 황후가 될 수 없다는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여론을 핑계로 진지왕은 미실을 황후로 못 아들이지 않는다. 4년간 통치를 했던 진지왕은 어머니 사도왕후와 색공 연인 미실에 의해서 쫓겨난 셈이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정치적 세력을 위해서 아들을 무참히 폐하고 유궁에까지 갇히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¹¹⁾』에는 갑자기 폐위된 왕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화랑세기』에 보면 3년간 굴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고 한다.¹²⁾ 바로 <도화녀와 비형랑>의 비밀이 풀리는 대화적 상상력의 지점이다.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고, 그 후 2년 만에 도화녀의 남편 역시 죽었다. 열흘 남짓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왕이 생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도화녀의 방에 와서 말하였다.”에서 폐위된 후 2년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유궁에 갇혀 있었던 때인 것이다. 『화랑세기』의 내용을 미루어볼 때 폐위는 시켰지만 사도왕후에게는 아들이고 미실은 색공을 한 사이였다. 그 굴에 있었던 진지왕은 김별아 소설<미실>의 상상력에서 미색공의 도움을 받아 유궁에서 잠깐 나오게 된다. 그리고 도화녀의 집으로 가서 도화녀와 이레 동안 머무는 것으로 유추해야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귀신의 자식인 비형랑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비형의 탄생과 성장의 이야기이다. “한 사내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 하였다. 진평대왕(眞平大王)은 아이가 매우 특이하다는 말을 듣고는 거두어 궁중에서

11) 김부식, 아우경 편역, 『새로운 삼국사기』, 한국문화사, 2007.

12) 금류왕이 황란하였기 때문에 폐위되어 유궁(幽宮)에 3년간 살다가 죽었다. 공은 아직 어려 그 얼굴을 몰랐다. 지도태후가 태상태후의 명으로 다시 신왕(진평왕)을 섬기자 공은 신왕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때문에 왕이 가없게 여겨 총애하고 매우 함이 매우 도타웠다. 자라자 곧 개탄하며 문노의 문하에 들어가, 비보랑을 형으로 섬기고 서제인 비형랑(鼻荊郎)과 함께 힘써 낭도를 모았다. (김대문, 『화랑세기』 13세 용춘공 중의 일부, 1999, 141쪽)

길렀다.”의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일연은 정사로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을 환상적인 귀신이야기로 처리했다. 세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왕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 왕이 몰래 유궁을 빠져나가 도화녀를 만났고 비형량이라는 아이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진지왕의 자식인 비형량은 귀신의 자식이라는 해괴한 별명을 가지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밤마다 왕궁 담을 넘어 귀신들과 어울렸다. 진평왕은 그를 불러 귀신친구 중 유능한 인물을 정계에 등용시키기까지 한다. 드라마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지왕의 죽은 자식을 비담이라는 인물로 등장시키는 대화적 상상력을 보인다.

『화랑세기』에는 죽은 진지왕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 진지왕의 두 아들 중 첫째인 용수공은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와 결혼을 한다. 용수공은 아버지의 폐위로 성골에서 진골로 계급이 하락했고 그와 결혼한 천명공주 역시 지위가 하락하였다. 어려서 아버지 진지왕의 일을 잘 몰랐던 둘째 아들 용춘공은 다 자라자 그 사건을 개탄하고 문노의 제자가 되고 비형량과 함께 낭도를 모았다고 한다. 『화랑세기』에는 비형량을 용춘공의 서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같은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임을 분명히 밝힌다.

비형량이 자꾸 귀신들과 논다는 소문을 듣고 진평왕은 그를 불러 귀신친구들과 함께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놓게 하는데, 아마도 매우 빨리 완성된 것을 하룻밤이라고 하지는 않았을까 싶다. 왕은 비형량에게 친구 중 유능한 인재인 길달을 추천받아 정계에 등용시킨다. 그런데 비형량이 친구 길달을 죽인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둔갑해 도망치자 비형은 귀신을 시켜 붙잡아 죽였다. 그래서 귀신들은 비형의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비형량이 친구 길달을 죽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이야기이다.

왜 자신이 직접 왕에게 천거한 인물을 죽이게 되었을까. 어쨌든 비형랑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운 이름으로 기억되기에 이른 것이다.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비형랑은 귀신을 쫓는 문구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성스러운 임금의 뉘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여기로세. 날뛰는 온갖 귀신들이여, 이곳에는 함부로 머물지 말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 부분 역시 다성성의 대화적 상상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존재를 확인받지 못한 폐위된 왕의 자식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4. 드라마 <김수로>에 활용된 『삼국유사』의 상호소통성

지나치게 허구적인 환상성을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가락국기>의 김수로와 허황옥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삼국유사』에 구현된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일연의 역사에 대한 열린 상상력,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민족의식,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소통의 세계관과 문화관을 알 수 있게 된다. 『삼국유사』는 경험과 상상력, 현실과 초현실이 혼합된 언어표현체로서 문헌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받는다.¹³⁾ 역사, 정치 사회사, 불교, 언어, 풍속, 국문학, 한문학 등 그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할 정도이다. 『삼국사기』를 보완하면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의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성스러운 이야기와 속된 이야기가 공존함으로써 통합적인 세계

13)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III-고대, 중세 문화의 탐색』,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2, 12, 248쪽.

관을 보여주는 일연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삼국유사』에 채록된 설화의 상당부분이 풍요나 성년식 같은 제의의 구술 상관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제의 학파로 불리는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상력이지만 우리 사회의 축제가 『삼국유사』를 텍스트로 참고하는 것에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논의를 십분 받아들이면 『삼국유사』의 설화들이 천신굿, 지신굿, 해신굿, 용신굿, 처용굿 등과 다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된다.

<가락국기>의 김수로의 부인인 허황옥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등장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대화적 상상력이 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와 열린 다문화주의를 통해 상호소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가락국기>는 가야의 건국 설화인 수로왕의 이야기이다. 춤과 노래의 제전연회가 보이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세시풍속이나 관혼상제 때 이러한 연회가 펼쳐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탈의 존재가 발견된다. 탈놀이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 땅에서 벌어진 놀이의 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단서를 읽게 된다. 일연이 <가락국기>를 기록한 의의는 실로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료가 그다지 많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야의 왕비인 허황옥이 먼 이국땅인 아유타국의 공주라는 거두절미한 일연의 진술은 후세인들을 당혹하게 만든다. 따라서 그 부분에 착안해 소설<허황옥, 가야를 품다>가 가능해진다. 즉 허황옥은 왕손 출신의 장사꾼의 딸로 등장하고 무명의 청년 김수로를 흠모하는 이국의 여인이었다는 상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상상들은 허황옥이 진술된 <가락국기>를 통해 볼 때 보다 더 능동적이고 영웅적인 다문화 여성임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편에 나오는 허황옥의 진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 허황옥은 자신이 가야에 들어올 때 신하들의 마중에 응하지 않고 왕이 직접 마중 나오도록 하였다.

둘. 자신이 가야에 온 것을 신이한 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천신의 영험함을 강조하였다.

셋. 가야의 김수로는 허황옥을 맞이하고서야 구간들의 벼슬 명칭을 제도화하였다.

넷. 김수로는 허황옥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는 마치 해와 달,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고 하였다.

다섯. 황후가 죽자 나라 사람들은 땅이 무너진 듯 탄식했다고 한다.¹⁴⁾

<가락국기>는 역사적으로 자료가 거의 없는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김수로>의 설정은 소설 <허황옥, 가야를 품다>에서 많은 차용을 한 것임일 수 있다. 일단 아유타 공주라는 설정은 그녀가 아유타국의 왕손가 대상인의 딸이라는 설정을 가능하게 했다. 소설의 발상을 그대로 드라마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허황옥이라는 인물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이 아니라 왕과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다문화 사회에 신선한 시각을 던져준다. 소설과 드라마는 아마도 허황옥이 신하들의 마중을 거부한 점과 자신이 천신의 명령을 받아서 온 것임을 알리는 대목에서 이러한 주체적 여성성을 읽어낸 듯하다. 일연이 기술한 대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또한 여왕의 역할이 왕을 보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황우의 등장이 제도와 질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구간들의 벼슬 명칭이 재정비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음양의 조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백성들의 사랑

14)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가락국기>편에 나오는 허황옥의 기록을 재정리하였다.

을 받는 황후라는 사유는 땅이 무너지는 듯 한 탄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일연이 『삼국유사』 전반에 구사하는 대화적 상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도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시대의 민중의 욕망을 반영하면서 수많은 텍스트를 재생산하고 있다. 대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가는 일연의 사유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수평적 상호 소통을 희망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유사』를 의미로써 받아들이지 않고 늘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읽는 것이다. 당시의 민중이 이야기에 담은 욕망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욕망은 근본적으로 서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5. 나오며

대화적 상상력으로 일연의 세계관과 문화관의 첫 번째 특징은 역사에 대한 열린 상상력이다. 먼저 가치의 고정화를 해체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에 기록된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반역 사실을 마치 한편의 극적 드라마의 대화로 보여준다. 그러한 글쓰기 전략은 역사에 대한 가치를 유보시키는 열린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보고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후세에 읽는 사람들에게 간극을 열어놓은 셈이다. 대화적 상상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연의 세계관과 문화관의 두 번째 특징은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민족의식이다. 나라 없는 민족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야기의 공유이다. 같은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한 민족으로서 소속감을 가진다. 일연의 생각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일연은 이 이야기의 힘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액을 몰아내기도 하며 적을 물리치는 축사의

기능도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대화적 상상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연의 세계관과 문화관의 세 번째 특징은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과거와 현재의 소통이다. 일연의 상상력의 중요한 일면은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소통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연의 텍스트는 현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시대에 『삼국유사』의 독법은 새로워져야 한다. 현대 역사 드라마의 상당부분이 『삼국유사』에 기대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미디어의 원전 텍스트가 되는 『삼국유사』에 대한 독해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나라가 없던 시절 민족에게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식을 부여하고자 했던 일연의 『삼국유사』는 높은 문화의식의 소산이다. 문화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석해내는 나라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이 없다. 일연의 『삼국유사』가 당시의 신앙생활과 문화, 의례와 제의, 생산기술문화, 의식주, 예술문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본고는 그것에 더불어 대화적 상상력이 들어있는 현대 텍스트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과거의 삶의 질서는 형태와 모양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21세기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운기, 『삼국유사』, 홍익출판사, 1998.
- 고운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현암사, 2002.
- 고운기, 『삼국사기열전』, 현암사, 2005.
- 고운기, 『삼국유사 글쓰기 감각』, 현암사, 2010.
- 김대문, 이종욱 옮김, 『화랑세기』, 소나무, 1999.
- 김별아, 『미실』, 문이당, 2005.
- 김부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집부,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열규, 『신삼국유사』, 학연사, 2000.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99.
- 리상호, 『삼국유사』, 까치, 2000.
- 박진태, 『삼국유사의 종합적 이해』, 박이정, 2002.
-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0.
- 서정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현암사, 2003.
- 송효섭, 『문화기호학』, 아르케, 2000.
-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4.
- 엔닌, 김문경 옮김,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도서출판 중심, 2001.
- 이가원, 허경진, 『삼국유사』, 한양출판, 1996.
-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푸른역사, 2000.
- 이어령, 『이어령의 삼국유사』, 서정시학, 2006.
- 김부식, 아우경 편역, 『새로운 삼국사기』, 한국문화사, 2007.
- 이종욱, 『색공지신 미실』, 푸른역사, 2005.
-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 표정옥, 『그곳 축제에서 삼국유사를 만나다』,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 황패강, 『한국 신화의 연구』, 새문사, 2000.

Edwin O. Reischauer, Ennen's Travels in Tang China, The Ronald Press Company, 1955.

<논문>

-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2」, 『한국 언어문화』 Vol.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권인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 Vol. 4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2008.
- 김주한, 「삼국유사소재 <찬>에 대하여」, 『삼국유사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 1983.
- 박상영, 「『삼국유사』소재 찬사를 통해 본 일연의 세계인식」, 『고전문화연구』 Vol.30, 한국고전문화학회, 2006.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I」, 『민속학』, 민속학회, 1997, 12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II-문헌적 성격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1999,12.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III-고대 , 중세 문화의 탐색」,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0,12.
- 윤혜신, 「『삼국유사』소재 설화에 나타난 천신의 인격화 양상과 의미」, 『민속문학사연구』 Vol. 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 이강욱,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 연구』 Vol. 5, 국문학회, 2001.
- 이달문, 「『삼국유사』소재 단군 신화의 원전에 관한 한 가지 의문」, 『한문교육연구』 Vol. 22,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 이대형, 「모성담론의 문화적 형성과 재현 : 고대에서 근대전환까지 모성 담론의 문화적 조명: 『삼국유사』에 나타난 모성의 형상화」, 『한국고전 여성문학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 이동민, 「신라 불교사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1993.

-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와 길 찾기」, 『구비문학연구』 Vol.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장만식, 「『삼국유사』 권2 <무왕조>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 연구』 Vol. 6,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 정천구, 「삼국유사 글쓰기 방식의 특성 연구 - 수이전, 삼국사기, 해동고승전과의 비교를 통해」, 서울대 대학원, 19.
-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 38』, 한국사연구회, 1982.
- 최선경, 「『삼국유사』 불교설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형상과 기능에 관하여」, 『인간연구』 Vol. 8,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2005.
- 하은하, 「『삼국유사』 소재설화를 이용한 문학 치료의 한 사례」, 『문학치료연구』 Vol. 2,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삼국유사 관련 미디어 콘텐츠>

- 드라마<주몽>/드라마<서동요>/드라마<태왕사신기>/드라마<해신>/드라마
 <선덕여왕>/드라마<김수로>/영화<전우치>/영화<황산벌>
 KBS 역사스페셜 <현종하는 최대의 석탑, 미륵사지의 비밀을 밝힌다>, 2002.
 12. 14일.

<Abstract>

A study about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represented in Media Contents

-Focusing on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Strange Stories> -

Pyo, Jung Ok

This article examines a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through present media contents. The first object is to study about Ilyeon's cultural viewpoint through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represented in text and Media Content <HaeSin>, focusing on the discourse of subjects and others. The second object is to study about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represented in Media Content <The Queen of Sunduck>. The third object is to study about Dialogic imagination of <Samgukyusa> represented in Media Content <KimSuRo>.

There is no counting the number of media contents utilizing the <Samgukyusa> storytelling.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study about the Ilyeon's historical viewpoint, cultural viewpoint, and national viewpoint. <Samguksagi> is the result through the lens of Confucian ideas, whereas <Samgukyusa> is the Buddhist thoughts. This article is to reread the <Samgukyusa> newly through the lens of Ilyeon's world viewpoint. It is the

work to seek for the inner meaning <Samgukyusa> beyond understanding a fixed historical contexts.

Key words: Media contents, Samgukyusa, Dialogic Imagination, Ludic Imagination, Viewpoint, Cultural viewpiont, Historical viewpoint, Nationality, Open imagination, Femininity, androgyne, Cultural Dynamics, Homo Festivus, Homo Historicus.

접수일자 : 2011년 3월 10일

심사완료 : 2011년 4월 10일

게재확정 : 2011년 4월 20일